



월간 일본경제동향 2020년 10월호

Contents

- I. 한일경제 동향 2
 - 1. 한일 무역 동향 2
 - 2. 한일 직접투자 동향 5
 - 3. 한일 인적교류 동향 6
- II. 이달의 일본경제 동향 9
 - 1. 일본 무역 동향 9
 - 2. 일본 직접투자 동향 12
 - 3.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14
 - 4. 일본경제 최근 동향 19
 - 5. 일본기업 최근 동향 23



I. 한일경제 동향

1. 한일 무역 동향

□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일 무역구조는 한국이 일본에 대해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는 모습이었고, 한일 수출 및 수입의 규모는 2011년에 정점에 달한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그림1> 한일 무역의 장기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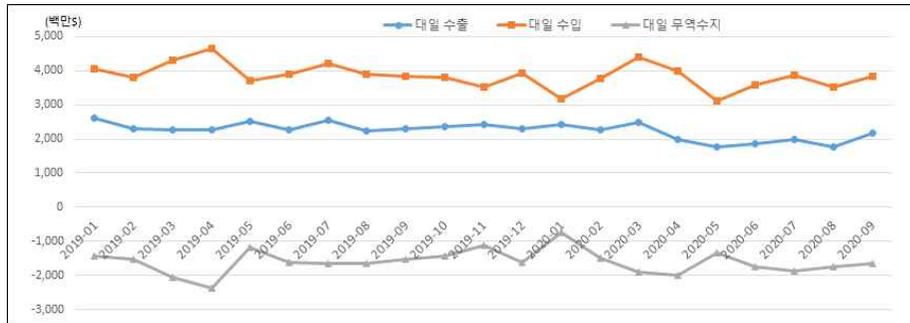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1965년부터의 통계에서 한 해의 예외도 없이 한국의 대일(對日) 무역적자가 이어져 왔음
- 대일 수출은 2011년 683억 달러, 대일 수입은 2011년 397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추세를 보였음
- 대일 무역적자는 2010년 361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다음 감소 추세를 보였음

□ 한일 무역의 최근 추세

○ <그림2>를 살펴보면,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무역에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COVID-19 발생 이후 대일(對日) 수출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8월에는 전월 대비 감소, 9월에는 전월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음

<그림2> 한일 무역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규제 발표 이후 대일 수출은 전월 대비 약간 감소하다가 유지되는 정도였는데, COVID-19 발발 이후 최근 8월에는 전월대비 감소하다가 9월에는 증가함
- 수출규제 발표 이후 대일 수입은 전월대비 감소 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COVID-19 발발 이후 최근 8월에는 전월대비 감소하다가 9월에는 증가함
- 무역적자는 2020년 2월 이후 계속 전월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5월에는 감소, 6월과 7월에는 증가, 8월과 9월에는 감소 추세를 보임

□ 한일 무역의 2020년 9월 상황

- <표1>은 한일 무역의 2020년 9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COVID-19 영향으로 대일(對日)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감소하였지만, 대일 수입은 증가하였음

<표1> 한일 무역의 2020년 9월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지(백만\$)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한국 전체	48,041	7.6	39,345	1.6	8,696
일본 부분	2,166	-6.3	3,828	0.2	-1,662
일본 비중	4.5		9.7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2020년 9월에 전년동월 대비 한국전체 수출이 7.6% 증가하였는데, 대일 수출은 6.3% 감소하여 21.7억 달러가 됨

- 2020년 9월에 전년동월 대비 한국전체 수입이 1.6% 증가하였는데, 대일 수입은 0.2% 증가하여 38.3억 달러가 됨
- 전체 무역수지는 87.0억 달러 흑자였으나, 대일 무역수지는 16.6억 달러 적자였음
- 한국 무역 전체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경우는 4.5%였고, 수입 경우는 9.7%였음

- <표2> 및 <표3>은 주요 대일(對日) 수출 및 수입 각각 상위 10개 품목의 9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양쪽 모두 전년동월 대비 감소 품목도 있지만 수입 품목도 있음

<표2> 한국의 2020년 9월 주요 대일(對日) 수출품목

순위	품목명	2019년 9월(백만\$, %)			2020년 9월(백만\$, %)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출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2,311	-6.4	-1,512	2,166	-6.3	-1,662
1	철강제품	308	-1.0	-200	269	-12.8	-86
2	광물성연료	359	-34.5	306	224	-37.7	190
3	정밀화학제품	169	8.3	-206	192	13.7	-132
4	산업용전자제품	125	33.1	-92	142	14.2	-62
5	전자부품	164	5.3	-430	136	-16.8	-511
6	금속광물	62	0.2	23	125	100.2	42
7	농산물	98	21.6	84	92	-6.3	77
8	석유화학제품	105	-40.0	-163	92	-12.4	-144
9	정밀기계	51	-1.5	-226	88	73.1	-276
10	기계요소공구및금형	94	16.9	-16	76	-19.4	-25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표3> 한국의 2020년 9월 주요 대일(對日) 수입품목

순위	품목명	2019년 9월(백만\$, %)			2020년 9월(백만\$, %)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수입금액	증감률	수지금액
	총계	3,822	-8.6	-1,512	3,828	0.2	-1,662
1	전자부품	593	9.5	-430	647	9.1	-511
2	정밀기계	276	-42.6	-226	364	31.7	-276
3	철강제품	508	2.2	-200	355	-30.1	-86
4	정밀화학제품	375	-1.1	-206	324	-13.5	-132
5	석유화학제품	267	-24.6	-163	236	-11.7	-144
6	플라스틱제품	200	16.2	-135	224	12.5	-160
7	수송기계	180	-14.2	-81	220	22.2	-145
8	산업용전자제품	216	-12.6	-92	204	-5.4	-62
9	기초산업기계	187	-4.1	-118	196	4.9	-130
10	산업기계	137	-18.6	-64	172	26.0	-109

주: 품목명은 MTI코드 2단위 분류기준에 근거한 것이며,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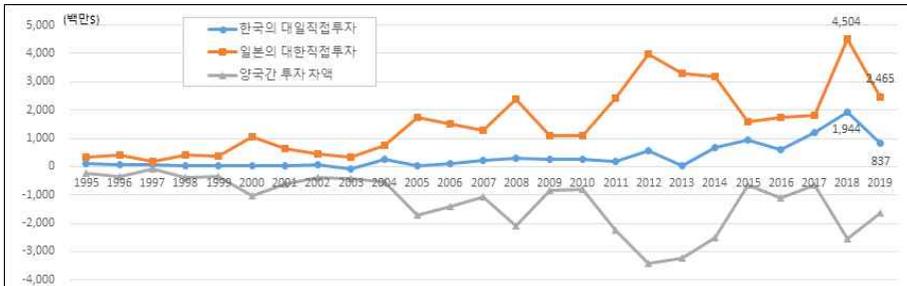
- 수출 경우는 금속광물 100.2%, 정밀기계 73.1%, 산업용전자제품 14.2%, 정밀화학제품 13.7% 증가한 반면, 광물성연료가 37.7%, 기계요소공구및금형이 19.4%, 전자부품이 16.8%, 철강제품이 12.8%, 석유화학제품이 12.4%, 농산물이 6.3% 감소하였음
- 수입 경우는 정밀메카가 31.7%, 산업기계가 26.0%, 수송기계가 22.2%, 플라스틱제품이 12.5%, 전자부품이 9.1%, 기초사업기계가 4.9% 증가한 반면, 철강제품이 30.1%, 정밀화학제품이 13.5%, 석유화학제품이 11.7%, 산업용전자제품이 5.4% 감소하였음

2. 한일 직접투자 동향

□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그림3> 한일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자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자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여 왔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하지만 2019년에는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자와 일본의 대한직접투자 양쪽 모두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9년 한일간 갈등이 양국의 상호 직접투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됨
- 2019년 한국의 대일직접투자자는 8.37억 달러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57.0% 감소한 것이며,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371.75억 달러의 2.25%를 차지하였음
- 2019년 일본의 대한직접투자자는 24.65억 달러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45.3% 감소한 것이며,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2,486.75억 달러의 0.99%를 차지하였음

□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4>는 한일 양국간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표4> 한일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2020년 6월		2020년 7월		2020년 8월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대외직접투자 (Net)	대내직접투자 (Net)
전체(억달러)	29,737	47,762	20,771	963	9,760	4,213
한국 부분(억달러)	290	71	73	52	81	26
한국 비중(%)	1.0	0.1	0.4	5.4	0.8	0.6

출처: 일본 재무성 대외 및 대내직접투자 속보(8월 11일, 9월 8일, 10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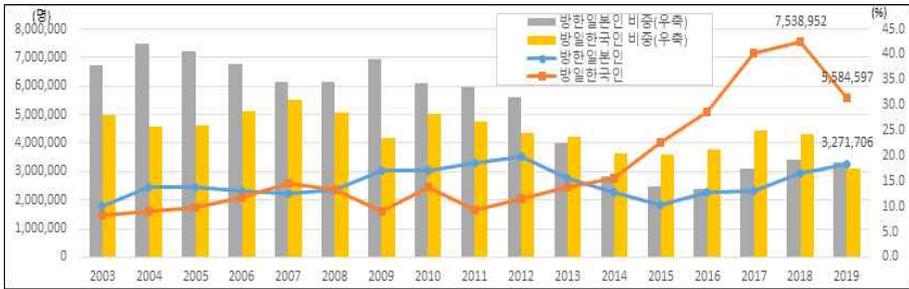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 실적은 2020년 7월에는 20,771억 엔(실행 55,517; 회수 34,746)이었으나, 8월에는 9,760억 엔(실행 31,881; 회수 22,121)으로 전월 대비 감소하였음
- 한편, 일본의 대한(對韓)직접투자(대외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자는 7월 73억 엔(실행 222; 회수 149)에서 8월 81억 엔(실행 223; 회수 142)으로 약간 증가하였으며,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전체 순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4%에서 0.8%로 증가하였음
-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 실적은 7월에는 963억 엔(실행 63,391; 회수 62,427)이었으나, 8월에는 4,213억 엔(실행 25,102; 회수 20,889)으로 전월 대비 증가하였음
- 한편, 한국의 대일(對日)직접투자(대내직접투자 중 한국부분) 순투자자는 7월 52억 엔(실행 59; 회수 7)에서 8월 26억 엔(실행 56; 회수 30)으로 감소하였으며, 일본의 대내직접투자 전체 순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4%에서 0.6%로 감소하였음

3. 한일 인적교류 동향

□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방일한국인 수가 방한일본인 수를 초월하였으나, 2019년에 방일한국인 수가 크게 감소함
- 방일한국인 수는 2012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여 2018년에 754만 명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2019년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여 558만 명이 됨
- 방한일본인 수는 2013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었고, 2019년에는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증가하여 327만 명이 달함

<그림4> 한일 인적교류의 장기적 추세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국인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일본인 수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25만 명 전후를 유지해 오다가 2020년 3월부터 감소추세로 바뀜
- 방한일본인 수는 최근 COVID-19 영향으로 1월 203,969명, 2월 211,199명, 3월 8,347명, 4월 360명, 5월 413명, 6월 498명, 7월 755명, 8월 1,275명, 9월 794명 등으로 3월부터 급감하였으나, 5월부터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9월에 다시 감소함
- 방일한국인 수는 2019년 8월부터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11월에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가 2020년 2월부터 다시 감소 추세로 바뀜
- 방일한국인 수는 최근 COVID-19 영향으로 1월 316,812명, 2월 143,896명, 3월 16,669명, 4월 299명, 5월 18명, 6월 122명, 7월 294명, 8월 700명, 9월 1,400명 등으로 3월부터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6월부터 미미하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10년대 방일한국인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방일외국인 전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2019년 방일외국인 총수는 3,188만 명이었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04년에는 42.0%에 달할 정도로 높았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 또한 방한외국인 전체 수가 2004년 이후 크게 증가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2019년 방한외국인 총수는 1,750만 명이었음)

□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추세

- <그림5>는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 COVID-19 영향으로 방한일본인 방일한국인 양쪽 모두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최근 미미하지만 증가 추세가 나타남

<그림5> 한일 인적교류의 최근 월별 추세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국인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한일 인적교류의 2020년 9월 상황

- <표5>는 한일 인적교류의 2020년 9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COVID-19 영향으로 인적교류가 전년동월 대비 크게 줄어든 점이 잘 나타나 있음

<표5> 한일 인적교류의 2020년 9월 상황

	한국방문 외국인 (명, %)			일본방문 외국인 (명, %)			
	2019년9월	2020년9월	증감률	2019년9월	2020년9월	증감률	
전체 (재외한국인포함)	1,459,664	65,040	-95.5	전체	2,272,883	13,700	-99.4
방한 일본인	251,119	794	-99.7	방일 한국인	201,252	1,400	-99.3
일본인 비중	17.2	1.2		한국인 비중	8.9	10.2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및 일본정부관광국 방일외국인 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방한외국인(재외한국인 포함) 전체 수는 65,04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95.5% 감소하였고, 방한일본인 수는 794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99.7% 감소하였음
- 방한외국인 중 일본인 비중은 2019년 9월 17.2%에서 2020년 9월 1.2%로 감소하였음
- 방일외국인 전체 수는 13,7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99.4% 감소하였고, 방일한국인 수는 1,4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99.3% 감소하였음
- 방일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019년 9월 8.9%에서 2020년 9월 10.2%로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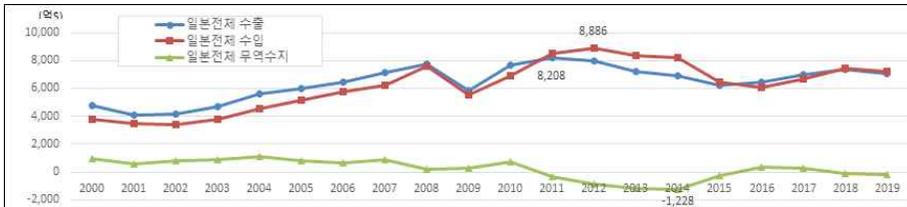
II. 이달의 일본경제 동향

1. 일본 무역 동향

□ 일본 무역의 장기적 추세

-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2010년까지는 무역흑자를 달성해 왔으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이후 무역적자가 나타나기 시작함

<그림6> 일본 무역의 장기적 추세



주: 각 수치는 재무성 엔화 기준 무역통계 자료를 JETRO가 달러로 환산한 값임
출처: JETRO 무역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2011년에 8,20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수입은 2012년에 8,886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
- 무역수지는 동일본대지진 영향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자를 보인 후 2016년과 2017년에 흑자를 보였지만, 2018년부터 다시 적자로 전환하였음
- 2019년 일본전체 수출은 7,057억 달러, 수입은 7,208억 달러, 무역적자는 151억 달러였음

□ 일본 무역의 2020년 9월 상황

- <표6>은 일본전체 무역의 2020년 9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COVID-19 영향으로 수출과 수입이 전년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6> 일본무역의 2020년 9월 상황

	2019년 9월	2020년 9월	증감률
수출(백만달러, %)	6,368,996	6,054,141	-4.9
수입(백만달러, %)	6,498,069	5,366,298	-17.4
수지(백만달러, %)	-129,073	687,843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0년 10월 29일)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은 철강, 광물성연료, 선박 등의 감소로 인해 전년동월 대비 4.9% 감소하여 6조 541억 엔이 되었음
- 수입은 원조유(原油), 액화천연가스, 통상기 등의 감소로 인해 전년동월 대비 17.4% 감소하여 5조 3,663억 엔이 되었음
- 무역수지는 전년동월에는 1,291억 엔의 적자였으나, 9월에는 6,878억 엔의 흑자였음
- <표7>은 일본전체 무역의 2020년 9월 지역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COVID-19 영향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출과 수입이 전년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7> 일본 무역의 2020년 9월 지역별 상황

	수출(백만달러, %)			수입(백만달러, %)			수지(백만달러,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수지금액	증감률
총액	6,054,141	100.0	-4.9	5,366,298	100.0	-17.4	687,843	-
아시아	3,376,925	55.8	-2.0	2,788,049	52.0	-12.6	588,876	130.7
중국	1,341,684	22.2	14.0	1,428,569	26.6	-11.9	-86,885	-80.4
홍콩	304,857	5.0	-9.8	5,949	0.1	-82.5	298,908	-1.7
대만	393,990	6.5	-1.7	240,853	4.5	-6.5	153,137	7.0
대한민국	398,580	6.6	-1.1	230,320	4.3	-8.3	168,260	10.7
싱가포르	145,489	2.4	-13.8	59,988	1.1	-1.5	85,501	-20.7
태국	223,355	3.7	-18.7	192,410	3.6	-14.6	30,945	-37.4
말레이시아	116,370	1.9	-2.6	119,372	2.2	-25.6	-3,002	-92.7
인도네시아	74,773	1.2	-46.9	129,559	2.4	-17.1	-54,786	251.2
필리핀	83,767	1.4	-20.2	89,497	1.7	-5.3	-5,730	-
베트남	158,834	2.6	-5.2	185,506	3.5	-14.4	-26,672	-45.7
인도	85,870	1.4	-12.5	43,450	0.8	-6.2	42,420	-18.1
대양주	161,154	2.7	-11.8	305,228	5.7	-33.4	-144,074	-47.7
호주	129,022	2.1	-11.8	270,177	5.0	-35.0	-141,155	-47.6
뉴질랜드	20,126	0.3	-7.5	20,271	0.4	-4.2	-145	-
북미	1,283,787	21.2	2.5	652,375	12.2	-11.2	631,412	22.1
미국	1,194,400	19.7	0.6	557,044	10.4	-10.7	637,356	13.1
캐나다	89,387	1.5	37.9	94,603	1.8	-14.0	-5,216	-88.5
중남미	164,513	2.7	-44.2	215,950	4.0	-19.7	-51,437	-
서유럽	700,965	11.6	-6.4	764,720	14.3	-15.3	-63,755	-58.8
독일	173,097	2.9	-8.0	185,240	3.5	-25.2	-12,143	-79.6
영국	101,583	1.7	-6.6	63,992	1.2	-14.8	37,591	11.6
프랑스	51,005	0.8	-13.5	85,959	1.6	-20.5	-34,954	-29.0
네덜란드	98,659	1.6	-3.4	33,252	0.6	18.1	65,407	-11.5
중부동부유럽/러시아등	146,366	2.4	-2.9	144,502	2.7	-21.6	1,864	-
중동	135,897	2.2	-38.3	403,277	7.5	-41.5	-267,380	-43.0
아프리카	84,533	1.4	14.8	91,366	1.7	34.3	-6833	-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0년 10월 29일)에 근거하여 작성

- 아시아 지역은 전체 수출의 55.8%, 수입의 52.0%를 차지하였는데, 전년동월 대비 수출 수입 모두 감소하였고, 對아시아 무역흑자는 5,589억 엔으로 130.7% 증가하였음
 - 중국은 제1위 무역 상대국으로서 수출의 22.2%, 수입의 26.6%를 차지하였고, 전년동월 대비 수출은 증가한 반면 수입은 감소하였고, 일본의 대중(對中) 무역적자는 869억 엔으로 80.4% 감소하였음
 - 대만은 수출의 6.5%, 수입의 4.5%를 차지하였고, 전년동월 대비 수출, 수입 모두 감소하였고, 일본의 對대만 무역흑자는 1,531억 엔으로 7.0% 증가하였음
 - 한국은 수출의 6.6%, 수입의 4.3%를 차지하였고, 전년동월 대비 수출 수입 모두 감소하였고, 일본의 대한(對韓) 무역흑자는 1,683억 엔으로 10.7% 증가하였음
 - 미국은 수출의 19.7%, 수입의 10.4%를 차지하였고, 전년동월 대비 수출은 증가한 반면 수입은 감소하였고, 일본의 대미(對美) 무역흑자는 6,374억 엔으로 13.1% 증가하였음
 - 서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출과 수입은 전반적으로 전년동월 대비 감소하였음
 - 독일에 대해 전년동월 대비 수출이 8.0%, 수입이 25.2% 감소하였음
 - 영국에 대해 전년동월 대비 수출이 6.6%, 수입이 14.8% 감소하였음
- <표8>은 일본전체 무역의 품목별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증가한 품목도 감소한 품목도 있지만, 수입은 모든 품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8> 일본 무역의 2020년 9월 품목별 상황

	수출(백만¥, %)				수입(백만¥, %)			
	수출금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기여도	수입금액	구성비	증감률	증감기여도
총액	6,054,141	100.0	-4.9	-4.9	5,366,298	100.0	-17.4	-17.4
1 식료품	69,074	1.1	15.6	0.1	526,819	9.8	-8.8	-0.8
2 원료품	84,624	1.4	5.7	0.1	348,150	6.5	-11.1	-0.7
3 광물성연료	46,212	0.8	-60.6	-1.1	786,288	14.7	-38.7	-7.6
4 화학제품	717,912	11.9	1.7	0.2	604,655	11.3	-12.4	-1.3
5 원료별제품	620,251	10.2	-11.3	-1.2	519,589	9.7	-8.3	-0.7
6 일반기계	1,089,980	18.0	-7.8	-1.4	559,051	10.4	-9.0	-0.9
7 전기기기	1,159,754	19.2	1.0	0.2	895,272	16.7	-16.5	-2.7
8 수송용기기	1,390,698	23.0	-7.2	-1.7	236,707	4.4	-14.5	-0.6
9 기타	875,635	14.5	-0.1	0.0	889,767	16.6	-13.3	-2.1

주: 증감률은 전년동월 대비 수치임
출처: 재무성 무역통계 보도발표(2020년 10월 29일)에 근거하여 작성

- 수출 경우는 식료품이 15.6%, 원료품이 5.7%, 화학제품이 1.7%, 전기기기가 1.0% 증가한 반면, 광물성연료가 60.6%, 원료별제품이 11.3%, 일반기계가 7.8%, 수송용기계가 7.2%, 기타가 0.1%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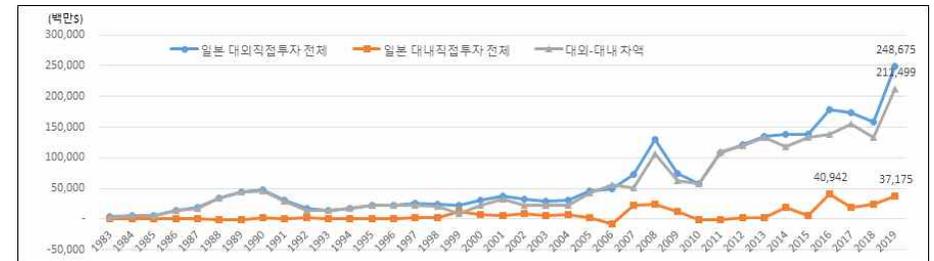
- 수송용기기에 속하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이륜자동차, 항공기류, 선박의 수출이 전년동월 대비 각각 0.5%, 7.7%, 10.0%, 34.1%, 51.2% 감소하였음
- 수입 경우는 모든 항목이 감소하였는데, 감소기여도가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광물성 연료가 38.7%, 전기기기가 16.5%, 기타가 13.3% 등으로 감소하였음
- 광물성원료에 속하는 원유및조유(粗油), 석유제품, 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석탄의 수입이 전년동월 대비 각각 43.4%, 18.1%, 42.2%, 2.4%, 36.2% 감소하였음

2. 일본 직접투자 동향

□ 일본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 <그림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은 대내직접투자 금액(국제수지 기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그림7> 일본 직접투자의 장기적 추세



주: 해외직접투자 순(net)투자 기준(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 발표의 국제수지통계를 달러로 환산)이며, 국제수지통계 기준 변경에 따라 2013년 이전과 2014 이후 데이터의 연속성은 없음
출처: JETRO 직접투자통계에 근거하여 작성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는 1985년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급증한 이후 버블 붕괴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음
- 그에 반해 대내직접투자는 2016년 이후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저조한 추세를 보여 왔음
- 대내직접투자가 저조했기 때문에 대외-대내 차액은 대외직접투자 경우와 유사한 추세를 보여 왔음
- 2019년 대외직접투자는 사상 최고인 2,487억 달러인 반면 대내직접투자는 372억 달러에 불과해 대외-대내 차액은 사상최대인 2,115억 달러에 달했음
- 2019년 일본의 무역수지가 적자(151억 달러)였던 것을 고려하면, 오늘날 일본은 무역 대국이 아니라 직접투자 대국으로 전환하였다고 할 수 있음

□ 일본 직접투자의 최근 상황

- <표9>는 2020년 8월 일본전체의 직접투자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외직접투자와 대내직접투자 모두 플러스였으며, 전자가 후자보다 많았음

<표9> 일본 직접투자의 2020년 8월 상황

	대외직접투자(억 엔, %)		대내직접투자(억 엔, %)	
	투자금액(Net)	구성비	투자금액(Net)	구성비
합계	9,760	100.0	4,213	100.0
아시아	5,403	55.4	1,712	40.6
중국	571	5.9	90	2.1
홍콩	438	4.5	189	4.5
대만	174	1.8	21	0.5
한국	81	0.8	26	0.6
싱가포르	2,198	22.5	1,468	34.8
태국	434	4.4	-92	-2.2
인도네시아	187	1.9	1	0.0
말레이시아	117	1.2	5	0.1
필리핀	175	1.8	0	0.0
베트남	136	1.4	0	0.0
인도	114	1.2	3	0.1
북미	3,030	31.0	952	22.6
미국	2,892	29.6	946	22.5
캐나다	138	1.4	6	0.1
중남미	2,357	24.1	374	8.9
대양주	511	5.2	-77	-1.8
호주	528	5.4	-69	-1.6
뉴질랜드	-12	-0.1	2	0.0
유럽	-1,595	-16.3	1,253	29.7
독일	82	0.8	36	0.9
영국	-2,530	-25.9	2,139	50.8
프랑스	43	0.4	328	7.8
네덜란드	254	2.6	510	12.1
중동	23	0.2	0	0.0
아프리카	30	0.3	0	0.0

출처: 일본 재무성 대외 및 대내직접투자 속보(2020년 9월 8일)에 근거하여 작성

- 대외직접투자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9,760억 엔(실행 31,881; 회수 22,121)으로 플러스였고, 전월 20,771억 엔 대비 감소하였음
- 대외직접투자는 아시아(55.4%), 북미(31.0%), 중남미(24.1%)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유럽 경우는 실행보다 회수가 더 많아 순투자는 마이너스였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는 미국(2,892억 엔, 29.6%), 싱가포르(2,198억 엔, 22.5%) 등에 대한 투자가 많았고, 영국 경우는 순투자가 마이너스(-2,530억 엔)였음

- 대내직접투자 순투자는 실행이 회수보다 많아 4,213억 엔(실행 25,102; 회수 20,889)으로 플러스였고, 전월 963억 엔 대비 증가하였음
- 대내직접투자는 아시아(40.6%), 유럽(29.7%), 북미(22.6%)를 중심으로 비교적 분산된 형태로 이루어졌음
- 단일 국가 기준에서는 영국(2,139억 엔, 50.8%), 싱가포르(1,468억 엔, 34.8%), 미국(946억 엔, 22.5%) 등으로부터의 투자가 많았음

3. 일본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 일본 정부의 2020년 10월 경제 상황 판단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0년 10월 23일)

- 일본 경제의 최근 주요 지표는 <표10>과 같음

<표10> 일본 주요 경제지표

	2018년	2019년	2020년 1-3월	2020년 4-6월	2020년 7-9월	2020년 6월	2020년 7월	2020년 8월	2020년 9월
<GDP> 실질국내총지출(GDP)	0.3	0.7	-1.8	-9.9					
<개인소비> 실질총고용자소득	2.3	0.9	0.6	-3.5		-4.0	-3.8	-3.4	
<민간설비투자> 자본재출하(수송기계제외)	3.9	-5.8	-5.7	-12.7		-9.1	-14.4	-21.4	
<주택건설> 신설주택착공호수(만호) 증감률	94.2 -2.3	90.5 -4.0	86.3 -9.9	80.0 -12.4		79.0 -12.8	82.8 -11.3	81.9 -9.1	
<공공투자> 공공공사 수주액	-8.4	10.1	2.5	4.2		-0.3	12.7	-5.4	
<수출입> 수출수량 수입수량	1.7 2.8	-4.3 -1.1	-5.5 -7.0	-25.1 -4.8	P -14.9 P -11.4	-26.9 -0.8	-21.9 -14.0	-14.9 P -11.6	P -7.7 P -8.4
<생산> 광공업생산지수	1.1	-3.0	-4.5	-19.8		-18.2	-15.5	-13.8	
<별인경상이익-계무성> 전체규모-전체산업	3.7	-3.5	-28.4	-46.6					
<도산> 기업도산건수 증감률	8,235 -2.0	8,383 1.7	2,164 12.9	1,837 -11.4	2,021 -7.3	780 6.2	789 -1.6	667 -1.6	565 -19.5
<고용상황> 완전실업률	2.4	2.4	2.4	2.8		2.8	2.9	3.0	
<물가> 국내기업물가 소비자물가(종합-고정기준)	2.6 1.0	0.2 0.5	0.5 0.5	-2.3 0.1	P -0.8	-1.6 0.1	-0.9 0.3	-0.6 0.2	P -0.8
<금융> 넛케이 평균주가 환율(엔/\$)	22,310 110.40	21,697 108.99	21,808 108.79	20,784 107.61	22,906 106.20	22,486 107.56	22,529 106.78	22,901 106.04	23,306 105.74

주: 각 수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며, P는 속보치
출처: 일본 내각부 월례경제보고(2020년 9월 및 10월) 주요경제지표 중 일부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며,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원본을 참조하기 바람

[소비 및 투자 등의 수요]

- 개인소비는 회복되고 있음
 - 수요측 통계와 공급측 통계를 합성한 소비종합지수는 8월에 전월 대비 0.8% 증가함
 - 실질고용자소득은 최근 보합 상태이며, 소비자 심리는 회복되고 있음
 - 감염증과 그에 따른 자숙의 영향이 남아 있지만, 사회경제 활동 단계를 상향시켜감에 따라 많은 재화 및 서비스에서 전향적인 변화가 계속되고 있음
 - 여행은 매우 낮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내여행 경우에는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외식은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신차판매대수는 회복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가전판매는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개인소비는 회복되고 있음
 - 향후 감염증대 방지책을 강구하면서 사회경제 활동 레벨을 단계적으로 상향시켜 가는 가운데 개인소비의 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됨
- 설비투자는 약세 기조임
 - 수요측 통계인 ‘법인기업통계계보(季報)’ (4-6월기 조사, 소프트웨어 포함)를 보면, 설비 투자는 2020년 4-6월기에 전기 대비 6.3% 감소하였는데,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5.3% 감소, 비제조업이 6.8% 감소함
 - 기계설비투자의 공급측 통계인 자본재총공급(국내대상 출하 및 수입)은 약세이며, 소프트웨어 투자는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임
 - 일본은행 短觀(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 9월 조사에 따르면, 2020년도 설비투자계획은 제조업에서는 증가, 비제조업에서는 감소, 전체산업에서는 감소가 예상됨
 - 短觀에 따른 기업의 설비판단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과잉이라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음
 - 선행지표를 보면, 기계수주는 감소 속도가 완만해지고 있고, 건축공사비 예정액은 최근 약세 상태임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기업수익의 감소와 장래 불투명 인식의 증가로 당분간은 신중한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주택건설은 약세 상태임
 - 자가주택의 착공은 약세 상태임
 - 임대주택의 착공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음
 - 분양주택의 착공은 약세 상태임
 - 총 호수는 8월에 전월 대비 1.0% 감소하여 연율 81.9만호로 되었음
 - 수도권 맨션 총판매호수는 회복되고 있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약세로 추이할 것으로 전망됨

- 공공투자는 견실하게 추이하고 있음
 - 8월의 공공공사 실적은 전월 대비 0.7% 감소, 9월의 공공공사 청구금액은 전월 대비 9.9% 감소, 8월 공공공사 수주액은 전월 대비 25.2% 감소로 나타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관련 예산의 집행에 따라 견실하게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수출은 회복되고 있으며, 수입은 최근 약세이며, 무역·서비스 수지는 대체적으로 균형 상태임
 - 수출은 회복 움직임이 보이는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및 미국 쪽 수출은 회복되고 있고, EU 및 기타지역 쪽 수출은 회복 움직임이 보임
 - 감염증에 따른 인바운드 쪽 영향을 살펴보면, 9월의 방일 외국인수는 전년동월 대비 99.4% 감소하였음
 - 수입은 최근 약세이며,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및 EU로부터의 수입은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약세 상태임
 - 무역·서비스 수지는 대체적으로 균형 상태임
 - 8월 무역수지는 수출금액의 증가로 흑자폭이 확대됨
 - 서비스 수지는 적자폭이 확대됨

[기업 활동 및 고용]

- 생산은 회복 움직임이 보임
 - 광공업생산지수는 8월은 전월 대비 1.0% 증가하였고, 광공업재고지수는 8월에 전월 대비 1.3% 감소하였음
 - 제조공업생산예측조사에 따르면 9월은 전월 대비 5.7% 증가, 10월은 전월 대비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업종별로 보면, 수송기계는 회복되고 있고, 생산용 기계는 하락이 멈추고 있는 중이며, 전자부품 및 디바이스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 생산의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회복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해외경제의 하향 변동 리스크 및 감염증에 따른 서플라이체인 영향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기업 이익은 감염증 영향으로 큰 폭의 감소가 계속되고 있고, 기업의 업황 판단 경우는 어려운 점들이 남아 있지만 개선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며, 도산 건수는 대체적으로 보합상태임
 - ‘법인기업통계계보(4-6월기 조사)’ 에 따르면 2020년 4-6월기 경상이익은 전년 대비 46.6% 감소, 전기 대비 29.7% 감소로 나타났는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년 대비 48.7% 감소, 비제조업이 전년대비 45.5% 감소로, 규모별로는 대·중견기업이 전년 대비 35.3% 감소, 중소기업이 전년 대비 79.6% 감소로 나타남

- 일본은행 短観(9월 조사)에 따르면 2020년도 매출액은 상반기에 전년 대비 10.0% 감소, 하반기에 전년 대비 3.3%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 경상이익은 상반기에 전년 대비 38.9% 감소, 하반기에 전년 대비 15.7% 감소가 예상되고 있음
- 기업의 업황 판단 경우는 어려운 점들이 남아 있지만, 개선의 움직임이 보임
- 일본은행 短観(9월 조사)에 따르면 ‘최근’의 업황은 ‘전체규모-전체산업’에서 상승하였고, 12월 시점 업황을 나타내는 ‘향후전망’은 ‘최근’에 비해 대체적으로 보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음
- 도산 건수는 대체적으로 보합상태로 나타났는데, 8월 667건, 9월 565건으로 되었고, 부채총액은 8월 724억 엔, 9월 707억 엔으로 되었음
- 고용 상황은 감염증 영향으로 약세로 움직이고 있는데, 고용자 수 등의 움직임에는 바닥이 견고한 모습이 보임
 - 완전실업률은 8월은 전월 대비 0.1% 높아져 3.0%로 됨
 - 노동력 인구, 취업자 수 및 완전실업자 수는 증가함
 - 고용자 수는 최근 보합권내로 움직이고 있으며, 신규 구인 수도 최근 보합권내로 움직이고 있음
 - 유효구인배율은 낮아지고 있고, 제조업의 잔업시간은 회복 움직임이 보임
 - 임금 경우는 정기급여 및 현금급여 총액은 최근 보합권내로 움직이고 있고, 그 결과 실질총고용자소득은 최근 보합권내로 움직이고 있음
 - 일본은행 短観(9월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고용인원은 계속적으로 전체 산업에서는 부족 초과로 나타난 반면, 제조업에서는 과잉초과로 나타났음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사회경제활동 레벨을 단계적으로 상향시켜 가는 가운데 하방이 견고한 상태로 추이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고용조정 상황에 따라 약세가 커질 우려도 있기에 감염증 영향에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물가 및 금융]

- 일본 국내 기업물가는 최근 상승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소비자물가는 보합상태임
 - 국내 기업물가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직접 영향을 제외하면 최근 상승 속도가 둔화하고 있음
 - 9월 국내기업물가는 소비세인상에 따른 직접 영향을 제외하면 전월 대비 0.1% 하락하였고, 하계전력요금 조정 후에는 전월대비 0.1% 하락하였음
 - 수입물가(엔 기준)는 상승하고 있음
 - ‘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 기준 소비자물가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직접 영향을 제외하면 보합상태임

- 물가상승을 예상하는 세대의 비율을 ‘소비동향조사(2인 이상 세대)’로 보면, 9월에는 전월 대비 2.3% 포인트 하락하여 72.8%로 됨
-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소비자 물가(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종합)는 소비세 인상 등에 따른 직접 영향을 제외하면 보합권내로 추이할 것으로 예상됨
- 주가(닛케이평균주가)는 상승-하락 추세를 보였고, 환율은 엔저로 추이함
 - 주가는 23,200엔 대에서 23,500엔 대까지 상승한 후, 23,000엔대까지 하락하다가 23,600엔 대까지 상승함
 - 달러 대비 엔화의 환율은 105엔대에서 106엔대로 추이함
 - 단기금리를 보면 무담보콜 금리는 -0.06% 대에서 -0.00% 대로 추이함
 - 기업금융에 관해서는 기업의 자금운용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만, 숙박·음식서비스 등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보이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 평균잔고(전국은행)는 전년 대비 6.2%(9월) 증가하였음
 - 머니터리 베이스(본원통화 평균잔고)는 전년 대비 14.3%(9월) 증가하였고, M2는 전년 대비 9.0%(9월) 증가하였음

□ 일본 정부의 2020년 10월 정책 방향 (내각부 월례경제보고, 2020년 10월 23일)

-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창생, 그리고 점점 심각해지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해에 대한 대응을 함과 더불어, 결코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COVID-19 감염대책과 경제활동을 양립시키면서 고용의 확보, 사업의 계속 등을 통해 국민생활을 지켜나가고자 함
 - 이에 더해 COVID-19로 인해 명확해진 디지털화 등의 새로운 목표에 관해서 규제개혁 등 집중적인 개혁과 필요한 투자를 함으로써 새롭게 강인한 경제성장을 실현하고자 함
 - 이를 위한 주요시책으로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0’ 등에 기반하여,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논의된 큰 방향성과 중점과제를 따르면서, 새롭게 설치된 성장전략회의에서 개혁을 구체화함
- 앞으로도 계속, 2020년도 제1차 보정예산을 포함한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경제대책’ 및 제2차 보정예산을 가능한 한 신속히 실행함과 더불어, 국내의 감염증 상황 및 경제 동향, 국민생활에 대한 영향을 주의 깊게 살피고, 필요에 따라 주저함 없이 임기응변적으로 또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응을 함
- 일본은행은 기업 등의 자금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함과 더불어, 금융시장 안정 유지의 관점에서 금융완화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일본은행에 대해서는 경제·물가·금융상황을 고려하면서 2%의 물가안정 목표를 실현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4. 일본경제 최근 동향

□ 일본정부의 경제 관련 동향

- 일본, 미국, 호주, 인도 4개국 외상 회의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실현을 위해 결속할 방침을 확인(NHK, 2020.10.7.)
 - 일본, 미국, 호주, 인도 4개국 외무장관은 10월 6일 도쿄에서 만나 중국을 염두에 두고 법의 지배 등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실현을 위해 4개국의 결속을 확인하는 동시에 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했음
 - 스가 총리는 미일동맹을 외교의 기축으로 하여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도 안정시키고자 이번 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과 어떠한 관계로 갈지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임
-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10월 19일 오전, 취임 후 첫 방문지인 베트남 하노이에서 후크 수상과 회담(NHK, 2020.10.19.)
 - 남지나해(남중국해)로의 진출을 계속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어 일본이 제창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구상의 추진과 경제와 안전 보장 분야에서의 협력 등을 확인
 - 양수녀는 법의 지배 등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추진을 향한 제휴를 확인하고 COVID-19 감염 확대로 마스크와 의약품의 공급이 막힌 것부터 공급망 강화를 향한 협력도 서로 이야기할 전망
- 도쿄 도민의 도내 여행 보조 사업이 10월 24일부터 개시(NHK, 2020.10.24.)
 - 도쿄도는 COVID-19 감염 확대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의 회복을 위해 도민의 도내 여행에 대해 1인당 1박 5000엔, 당일엔 2500엔을 독자적으로 보조함
 - 사업 적용은 24일부터 시작됐으며, 이 중 하토버스의 도쿄역 승강장은 예약 고객들로 붐볐는데, 하토버스에 의하면 24일 참가한 관광객 28명 전원이 도쿄도의 사업을 사용했음
 - 이 투어는 통상 1만1800엔이지만 Go To 트래블을 이용하면 약 반액인 5170엔이 됨
 - 하토 버스 홍보실의 야마모토 유타 과장은 “신형 코로나의 영향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고 있으므로 이것을 기회로 매출 회복에 연결하고 싶다” 고 함
- Go To 트래블 사업에 대해 연장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감(요미우리신문, 2020.10.28.)
 - 일본 정부와 여당은 10월 27일 내년 1월 말에 기한을 맞이하는 관광지원책 Go To 트래블 사업에 대해 연장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감

- COVID-19 감염 확대로 침체된 관광 수요를 더욱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음
- 스가 총리는 이날 공명당의 사이토 데쓰오 부대표 등과 수상관저에서 만나 사업을 내년 봄 연휴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제언을 받았음
- 스가 총리는 예산이 없어졌으니 종료하는 것이라 아니라 전체 상황을 보면서 해나가고 싶다고 말하며 관광산업 고용 확보 등을 배려할 생각을 나타냈음
- 일본 정부는 10월 30일 COVID-19에 관한 대책 본부에서 출입국 제한에 대한 새로운 완화책을 결정(닛케이신문, 2020.10.30.)
 - 1주일 이내 해외출장에서 일본으로 귀국한 일본인과 일본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2주간의 대기조치 조건부 면제를 11월 1일부터 실시
 - COVID-19 음성 증명서 외, 귀국 후 이동하는 장소 등을 기록한 행동 계획서의 제출도 조건으로 하며 이동은 직장파와 자택 왕복에 한정됨
 - 일본 정부는 한국과 싱가포르로부터의 귀국자에게 대기를 요청하지 않는 구조를 도입하고 있으며, 베트남과도 11월 1일부터 운용을 시작하는데, 이번 결정으로 이 틀을 맺지 않은 모든 국가나 지역으로 단기 출장을 갈 때에도 귀국 후 2주간 자택 대기가 필요 없게 됨
 - 면제는 귀국 시 대기 조치로 해외에 입국할 때는 상대국이 요구하는 격리조치 등을 따라야 함
 - 외무성은 30일, 감염의 확대를 억제하고 있는 중국이나 한국, 베트남, 호주 등 9개국·지역에의 도항금지 권고를 해제했으며, 한편 외국 비즈니스객의 수락을 완화하는 조치는 결정을 보류했음

□ 한일 협력 관련 동향

- 한일 양국정부는 10월 6일 비즈니스 목적의 상호 왕래를 8일부터 재개하기로 합의(닛케이신문, 2020.10.7.)
 - 출장자의 단기 체류와 주재원들의 장기 체류를 모두 허용하는 것은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임
 -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대신은 6일 기자 회견에서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관계자를 비롯한 양국 국민이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음
 - 한국과 일본의 원칙 90일 이내인 단기 도항은 COVID-19 음성증명과 행동계획을 제출하면 입국 후 2주간 숙박시설 등에서의 대기를 면제해 주며, 장기 체류자는 입국 검사와 2주간의 대기를 조건으로 받아들임
 - 일본은 COVID-19 감염 확대에 따라 아시아나 구미 주요국 등에서의 외국인 입국을 원칙적으로 거부해 왔고, 그 대상은 159개국·지역까지 확대되었으며 일본으로부터의 도항자나 일본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지역도 6일 현재 94곳에 이르기 때문에 기업 출장이나 주재가 금지되어 투자나 상담, 연구 개발에의 영향이 염려됨

- 일본정부는 경제나 사회에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6월부터 각국과 입국 제한 완화 협의를 시작했으며, 일본정부는 한국과의 왕래 재개로 일본의 감염 상황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 합의하려는 국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함
- 일본 측의 수락을 둘러싸고는 공항의 검사 체제 확충이 과제가 됨
-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전 징용공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 제시되지 않는 한 스가 총리가 방한해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사히신문, 2020.10.14.)
- 한국 국내에서는 전 징용공에 대한 배상금을 일본제철(구 신일본제철주금)에게 명령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회사 측의 자산을 압류해 현금화하는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1965년의 일한 청구권협정으로 해결이 끝난 상태이므로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시정을 요구해 왔음
- 한국은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연말에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계획인데,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 간부는 10월 13일 “언제 현금화될지 모르는 상태인 스가 총리가 방한할 여건을 조성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미 여러 경로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함
- 한편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연내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국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음
- 한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양국 관계가 악화된 상태인 지금 정상들이 만나야 한다”며 일본 측의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함
- 베를린 소녀상에 대해 미테구 당국은 10월 13일 설치를 당면 인정한다고 발표했다(마이니치신문, 2020.10.14.)
- 베를린 미테구의 소녀상은 9월 하순에 ‘코리아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주택가 공원 앞에 설치됐음
- 설치를 허가한 구는 10월 8일에 한일 간의 복잡한 정치적, 역사적 갈등을 독일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허가 취소하고 철거를 지시했음
- 이에 대해 협의회는 법원에 철거 금지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구청장은 13일 “코리아 협의회와 일본측 쌍방의 이익이 되는 타협안을 바란다”며 관계자의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할 생각을 표명했음
- 한일 공동 여론 조사 결과 일본에 좋은 인상을 가진 한국인은 12.3%(마이니치신문, 2020.10.16.)
- 일본의 언론NPO와 한국의 동아시아연구원은 10월 15일 한일 공동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일본에 좋은 인상을 가진 한국인은 작년보다 19.4포인트 감소한 12.3%였고, 일본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진 한국인도 최저였던 지난해보다 21.7% 증가한 71.6%로 일본 정부에 의한 2019년 7월의 대 한국 수출 규제 강화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한편, 한국에 좋은 인상을 가진 일본인은 25.9%로 전 징용공 판결이나 레이터 조사 문제 영향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던 지난해 20.0%보다 개선됐음
- 이번 조사는 9~10월에 실시하였으며, 일본 1000명, 한국 1006명에게서 각각 답변을 얻었음
- 한일의원연맹 간부 내달 중순 방일로 조정 관계 개선에 의견교환(NHK, 2020.10.16.)
- 한국의 초당파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한일의원연맹은 10월 6일 김진표씨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김씨는 한일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이고 있음
- 한일의원연맹 간부들은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일본을 방문하는 쪽으로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함
- 체류 중에는 일본의 초당파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일한의원연맹 회원들과 회담을 갖고 태평양전쟁 중의 징용문제 등으로 악화된 한일관계개선을 위해 의견을 교환할 것임
- 한일의원연맹은 스가 총리대신 및 자민당 니카이 간사장의 면담 일정도 모색하고 있으며,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인 자민당의 가와무라 전 관방장관이 17일부터 한국을 방문해 한국 측과 협의를 하기로 했음
-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인 자민당 가와무라 전 관방장관, 한국 여당대표들과 회담(산케이신문, 2020.10.19.)
- 일한의원연맹의 간사장을 맡고 있는 자민당 가와무라 다케오 전 관방장관은 10월 19일 한국 체류 중 회담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관계자와 한일 간 현안에 대해 양국 정부가 전향적으로 교섭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힘
- 가와무라 씨는 한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한일의원연맹의 김진표 회장과도 회담하고, 한일의원연맹이 11월 12~14일에 일본으로 오는 것을 확인했음
- 규슈 지역 및 야마구치현과 한국 8곳 지자체장들의 ‘한일해협 연안 현시도 교류 지사회의’가 10월 27일 온라인으로 열렸음(아사히신문, 2020.10.28.)
- 회의는 199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COVID-19의 영향으로 웹회의 형식으로 바뀌었음
- 일본 측은 나가사키, 사가, 후쿠오카, 야마구치 등 4개현이 참여했음
- 회의에서는 각 수장이 5분씩 코로나 감염 현상과 대책을 소개하였고, 나가무라 호우도우 지사는 나가사키시에 정착하고 있던 크루즈선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의 대응을 설명하며 “관계 기관의 책임, 역할 분담이 불명확했던 것이 의료 제공을 어렵게 만든 요인이었다”고 말했음

- 한국을 방문한 타키자키 시게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국 외무성 김정환 아시아태평양국장이 10월 29일 회담(산케이신문, 2020.10.29.)
 - 한일 국장 회담은 스가 요시히데 내각 출범 후 처음
 - 타키자키 국장은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에 대해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절대 피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전하여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조속히 제시하도록 한국 측에 다시 한 번 강하게 요구
 - 김 국장은 일본 정부와 피고기업이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
 - 한편, 김 국장은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며, 타키자키 국장은 한국 측이 바라는 성과는 수출관리 당국 간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 또한, 김 국장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의 처리수 방출 문제에 관해 오염수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엄중한 인식과 심각한 우려를 강조했으며, 타키자키 국장은 적극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해 나갈 방침을 전했다
 - 양측은 앞서 시작된 비즈니스 목적 한정 단기체류 체계인 ‘비즈니스 트랙’ 운용과 의원 교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관계가 어려울수록 교류가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음

5. 일본기업 최근 동향

□ 일본 국내 기업 동향

- 토요타자동차와 미쓰이스미토모 파이낸셜그룹(FG) 등이 수소 활용 촉진을 위한 협의회를 연내에도 시작함(닛케이신문, 2020.10.14.)
 - 새롭게 설치하는 것은 ‘수소밸류체인추진협의회’로 토요타, 미쓰이스미토모 FG 외에 이와야산업이 사무국이 되어, 기업이나 단체, 지자체에 참가를 호소
 - 생산, 수송, 공급을 망라한 수소 공급망 구축과 신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지원을 주요 활동으로 상정함
 - 예를 들어, 저렴한 공급 기법의 확립과 수요 확대를 위해 각사의 기술 및 노하우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연구개발 및 비즈니스를 전개하거나 사업화를 위한 조사 활동을 실시하고, 멤버인 금융기관과 제휴하여 원활한 자금 공급 구조도 정비함
 - 수소는 연소 시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클린 에너지의 비장의 수단으로 기대되고 있음

- 조사회사인 후지경제에 따르면 수소연료 관련 일본 국내 시장규모가 2030년도에 4천억 엔 초과로 2018년도의 56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 벌써 JR동일본, 히타치제작소, 토요타는 수소연료전지와 축전지를 병용하는 시험 차량 개발에 나섰다
- 협의회에서는 새로운 수소 활용법을 폭넓게 검토하고 에너지 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폭넓은 업종과의 연계에 힘씀
- 짐에어(ZipAir)은 10월 16일 나리타-서울 노선 여객편을 첫 취항했음(닛케이신문, 2020.10.16.)
 - 일본항공 산하 저가항공사 짐에어 도쿄(지바현 나리타시)는 16일 나리타-서울 노선 여객편을 첫 취항했으며, 우선은 주 2편으로 시작하여 25일부터는 주 3편으로 확대
 - 당면은 귀국이나 비즈니스 고객의 이용이 중심이 될 전망으로 일본 국내 항공사로서는 현재 유일한 한국 노선의 정기 운항이며, 동사의 여객 수요의 다과는 다른 LCC의 운항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음
 - 서울 노선은 빠른 시일 내에 주 7회까지 확대하기로 했음
 -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고객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규제완화로 본래 타겟인 관광 수요의 회복이 불가결함
 - 항공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여객편의 신규 취항은 과거 같으면 적자 위험이 높지만 화물수입으로 편당 수지가 흑자를 내면서 짐에어는 다른 업체에 앞서서 한국 노선의 운항에 나섰다
- 양자암호를 사용한 통신의 사업화에 도시바가 나섬(아사히신문, 2020.10.19.)
 - 도시바는 이론상으로는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고 여겨져 궁극적인 암호라고 기대되는 양자암호를 사용한 통신의 사업화에 나섬
 - 2021년 1월에 국가의 연구기관에 납입해 복수 거점간의 데이터 송수신에 실증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함
 - 지금은 전용 케이블이 필요하지만, 25년까지 기존의 통신회선을 사용한 서비스도 개시한다고 하며, 구미나 아시아의 금융기관, 의료기관 등에서의 수요를 기대함
 - 양자암호 통신에서는 암호를 푸는 열쇠를 빛을 만드는 광자라는 물질에 실어서 보내는데, 광자는 분할도 복사도 할 수 없으므로 통신 중간에 열쇠를 훔치는 것이 불가능하며 양자암호는 궁극적인 암호라고도 불림
 - 도시바는 약 20년 전부터 연구를 진행시켜 광파이버 회선을 사용하는 방법의 실증 실험 등에 성공해 왔음
 - 세계에서는 중국의 국영기업이 이미 베이징-상하이 간의 양자암호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고, 한국이나 독일에서도 정비하는 움직임이 있음
 - 도시바는 양자암호 시장이 2035년에는 2조엔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함

- COVID-19가 항공업계를 직격(마이니치신문, 2020.10.28.)
 - COVID-19 감염 확대가 항공 대기업 ANA 홀딩스의 경영을 직격했음
 - 2021년 3월기의 연결 최종(당기) 손익은 사상 최대 적자가 될 전망으로 리먼쇼크나 미 동시 다발 테러 당시를 큰 폭으로 웃돌고 있음
 - ANAHD의 카타노사카 신야 사장은 10월 27일 기자 회견에서 에어라인 사업 규모를 일시적으로 축소해서 코로나 터널을 빠져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ANAHD가 사업구조개혁을 단행하는 것은 COVID-19의 영향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선 수요 회복이 요원해지고 있기 때문
 - 국내선은 정부의 관광 지원책의 효과도 있어 회복 경향에 있지만, 국제선은 80% 이상을 감편 한 채로, 감염 확대전의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은 국내선이 21년도 말, 국제선은 23년도 즈음으로 전망됨
 - 카타노사카 사장은 2년 연속의 적자를 피하기 위해 인건비 억제나 기체 수 삭감 등에 의해 기업 규모를 축소함
 - 산하의 전일본공수(ANA)는 일반 사원 약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연 수입 평균의 약 3할을 감액하는 인건비 억제책을 노동조합에 제시한 상태이며, 그룹 전체에서도 인건비의 억제를 진행하고, 유지비가 비싼 보잉 777 등의 대형기를 추가로 퇴출시키는 등 2년간 합계 4000억엔의 비용 삭감을 실시함
 - 이러한 배경에는 최근의 확대노선이 있는데, 오랫동안 경쟁해 온 일본항공(JAL)이 2010년 경영파탄 후 구제 금융을 받아 재건한 뒤 정부는 공평한 경쟁 환경을 위해 JAL의 사업 확장을 제한했고, 한편으로 비즈니스 수요가 많은 하네다 공항의 발착 쿼터가 많이 배정된 전일본공수(ANA)는 국제선을 중심으로 노선을 확대해 보유 항공기를 적극적으로 늘렸음
 - 확대 노선에 대해 카타노사카 사장은 “(그 시점에서는) 올바른 전략이었지만, 예상 외로 뛰어넘는 코로나 영향이 있었다” 라고 설명하지만, 항공업계에 정통한 미즈노 토오루 메이카이대 교수는 “규모 확대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고, 적극적인 경영전략이 환관이 됐다” 고 지적
 -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것은 산하 저가항공사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변혁으로 전일본공수(ANA)와 피치항공에 이은 ‘제3의 브랜드’ 를 신설하여 중거리 국제선수요 확보를 모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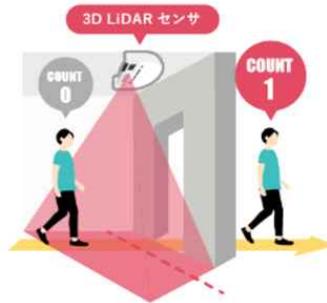
□ 한일 기업 협력 관련 동향

- 오노약품공업은 한국 향간질약을 일본에서 판매하기로 함(닛케이신문, 2020.10.13.)
 - 오노약품공업은 10월 13일 한국 SK바이오파마슈티컬스로부터 간질약 세노바메이트의 일본 독점 개발·판매권을 획득했다고 밝혔음
 - 오노약품공업은 매출과 개발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최대 481억 엔을 지불하며, 매출에 따른 로열티도 지불함
 - 세노바메이트는 2019년 11월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제조판매 승인을 받아 2020년 5월부터 판매되고 있음
- 후쿠오카발 한국행 국제선 운항이 10월 13일 7개월 만에 재개(NHK, 2020.10.13.)
 - COVID-19 감염으로 후쿠오카공항에서 중단됐던 한국행 국제선 운항이 재개됐음
 - 운항이 재개된 것은 후쿠오카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아시아나 항공 국제선
 - COVID-19 감염 확대로 인한 입국 제한 영향으로 후쿠오카공항에서는 올해 3월 8일을 마지막으로 한국과의 사이를 잇는 항공편이 모두 운항을 보류했음
 - 13일에는 일본 규슈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요청에 따라 운항을 재개해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 국적자와 배우자 등으로 한정됐음
 - 손님을 태운 운항은 편도만으로 탑승률은 20% 정도였고, 비행기는 오전 11시경 한국을 향해 이륙했음
 - 김봉수 아시아나항공 후쿠오카지점장은 “이번 운항이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고 규슈와 한국을 잇는 항공기 운항 재개의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 고 말했음
 -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28일에도 후쿠오카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항공편을 운항할 예정
- 히타치LG데이터스토리지는 레이저센서를 활용한 방문객 수 파악 서비스를 일본에서 판매함(닛케이신문, 2020.10.19.)
 - 히타치제작소와 한국 LG전자가 공동출자한 히타치LG데이터스토리지(도쿄도·미나토구)는 레이저를 사용한 센서 LiDAR(라이더)를 활용하여 소매점 등에서 방문객의 수를 파악하는 서비스를 일본에서 판매함
 - 천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라이더와 클라우드 경유로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데, 라이더는 적외선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반사된 빛을 수신하여 사람과의 거리와 움직임을 3차원으로 검지함
 - 계측한 데이터를 클라우드 상에서 해석하여 통행인의 수와 입점률, 퇴점수(退店數) 등을 파악할 수 있음

- 감시카메라의 화상해석에 비해 개인의 얼굴 등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가 쉽고, 어플리케이션은 나중에 추가 가능하며 복수의 라이다를 사용할 경우 내접객의 동선 해석 등에도 사용할 수 있음
- 영국의 디스카운트 스토어에서는 9월에 전 550 점포에서 선행 도입하여 감시카메라를 사용한 서비스 등을 시험해 보았는데, 정확도나 확장성을 높이 평가함
- 매장 입구와 출구에 라이다를 설치하여 매장 내 고객 수를 실시간으로 계측하고 일정 수를 넘어 실내가 조밀해질 것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 설치한 신호로 주의를 촉구해 입점을 제한함
- 사람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점포 앞에서 알코올 소독을 하지 않았던 방문자의 감지도 가능하며 사회적 거리의 계측 등에도 응용할 수 있음

광디스크드라이브
글로벌 점유율 No.1의
광학 기술을 활용한 고정밀도 센서

업계 점유율 No.1의 광디스크 드라이브 개발로 길러진 광학 기술과 생산 기술을 활용한 3D LiDAR 센서. 여러 분야에서의 가동 데이터를 이용한 기계 학습에 의해 고도의 검지 정확도를 실현했습니다. 인물 검지 정확도는 설치 환경, 설치 조건에 따라 변동하고 사생활을 배려하면서 통과 인원이나 체류 인원을 계측합니다.



어디서든 관리
다양한 니즈 대응

점포, 병원, 공장 등 고객의 희망 상황에 맞추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과 인원 및 체류 인원을 주야 관계없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다양한 단말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안전성이 높은 클라우드 관리와
발전적인 장래성

계측 데이터는 안전한 클라우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계측 데이터를 축적 활용하는 것을 통해 장래적으로 고객의 다중 다양한 요망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출처: Hitachi-LG Data Storage 홈페이지(<https://hlds.co.jp/product/>)